

보령물빛공원 개원 기념 백일장 입상작품집

물사랑 꿈나무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물사랑 꿈나무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물사랑 꿈나무

1판 1쇄 2008. 11. 27

위 은 이 한국수자원공사 · 최양희

퍼 낸 곳 도서출판 씨앤씨

출판등록 1993. 10. 28

충남 보령시 동대동 810-6

전화 041.936.5219

팩스 041.936.5433

전자우편 cc5219@naver.com

■ <물사랑 꿈나무>에 수록된 글은 2008년 10월 15일
보령물빛공원 개원 기념 백일장 행사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작품이며,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에서 출간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충남 보령시 웅천읍 평리 517-2

전화 041.939.1217 팩스 939.1231











보령물빛공원 개원 기념 백일장 입상자

미산초등학교



금상
5학년 백석민



은상
5학년 이유진



은상
6학년 오한솔



동상
6학년 김보람



동상
5학년 강민숙



동상
6학년 현예진



한내문학상
6학년 김수림



한내문학상
4학년 김우선

웅천초등학교



금상
6학년 김채은



은상
5학년 김소진



은상
5학년 신용혁



동상
5학년 김진석

보령물빛공원 개원 기념 백일장 입상자



등상
5학년 김기현



등상
4학년 김시림



한내문학상
5학년 임진경

주산초등학교



금상
5학년 이원규



은상
3학년 이서연



은상
6학년 이경아



등상
5학년 추교환



등상
6학년 박은주



등상
6학년 이유영



한내문학상
3학년 이유정



한내문학상
4학년 이현지

■ 발간사 / 단장



들국화 향기 그윽한 독서의 계절 가을에 보령물
빛공원 개원기념 백일장 문집을 발간하게 된 것
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령물빛공원 개원 기념 백일장 문집이 나
오기까지 정성을 다해주신 최양희 한내문학 회장님
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개원식 및 백일장에 참여해
준 보령다목적댐 주변지역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5일 맑고 청명한 날에 오색풍
선을 날리며 물빛공원 개원 기념 백일장행사를 가졌
고, 백일장에 참여한 학생들은 보령시에 깨끗한 물
을 공급해 주는 보령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자
연 속에서 물과 자연사랑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깨끗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물과 자연사랑에 대한 글’을 주제로 하여 백일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은 댐 주변 시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인 보령물빛공원이 탄생하기까지 지난 8개월 동안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보령물빛공원 개원 기념 백일장 문집은 더욱 뜻 깊은 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은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재개발 및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0.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단장 김 정 호

■ 축 사 / 보령교육장



물빛공원 개원을 축하하는 백일장대회를 개최하던 날 보령호에 내려 앉아 두둥실 떠다니는 흰 구름과 곱게 물든 단풍 사이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글짓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물빛공원 개원을 축하하는 백일장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작품을 모아『물사랑 꿈나무』문집을 발간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간 생명과도 직결되는 물은 인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세계 여러 학자들은 물 부족 사태가 21세기의 에이즈, 기아문제와 함께 3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 변화에 따라 가뭄과 홍수의 빈도가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물의 낭비요인을 줄이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며, 물에

대한 사랑과 아끼는 습관을 이제부터는 말보다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에서는 보령호에 아름다운 물빛공원을 조성하여 보령시민은 물론 보령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의 제공과 함께, 백일장대회를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물 사랑 정신을 갖고 보령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존과 물을 아껴 쓰는 마음을 기르고자 『물 사랑 꿈나무』 문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쯁록 이 한 권의 책이 우리고장 어린이들에게 물사랑 정신과 애향심을 갖게 하고 보령호와 더불어 물빛공원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문집이 발간되기까지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문집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0.

충청남도 보령교육청
교육장 김 재 득

■ 심사평 / 심사위원장



꿈나무들 말한 대로 우린 물이 없으면 한 순간도 살 수 없지요. 아니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상에 살고 있는 동식물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는 태양과 달, 흙과 나무, 그리고 불과 물 때문에 생존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물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이번에 어린이들한테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도 중요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이번에 백일장대회를 개최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아주 좋은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지금의 어린학생들처럼, 어릴 적부터 작문을 읽으면서, 또 써본 경험이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 이와 같이 좋은 물빛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글을 쓰는 것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

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 깊은 이 마당에서, 어린 꿈나무들은 본인의 글재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정말 이것은 분명 축복이면서도, 나중에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크게 장식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빛사랑>이란 이름만 들어도 정겹고도 다정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연경관이 한눈에 탁! 들어오는 물빛공원 잔디밭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글을 쓰고 있는 어린이들은 정말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천진스럽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 아이들의 작품이 오후 늦게 우리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한내문학 심사위원들은 물빛공원 벤치에 둘러앉아서 원고지 한편, 한편, 읽어나가기 시작했지요. 몇 번을 훑어보고, 살피면서 우수작품을 가려냈습니다.

그런데 심사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께서는 스스로 원고 속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정말 어린아이 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꿈나무들 정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고, 동심의 세계가 또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도 함께 쫓! 하는 전율을 느끼면서 새삼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끝으로 최종 우수작품을 가려내면서 느낀 것이지만, 나는 아기자기하면서도 진솔한 아이들 마음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무척 즐거웠습니다.

이번 금상에는 웅천초등학교 6학년 김채은, 주산초등학교 5학년 이원규, 미산초등학교 5학년 백석희 학생으로 선정했습니다.

은상에는 웅천초, 5학년 김소진, 5학년 신용혁, 주산초, 3학년 이서연, 6학년 이경아, 미산초, 5학년 이유진, 6학년 이한솔 학생으로 순위를 정하면서도, 나는 사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동상이나 입선 작품들도 금은상 못지않은 작품이었으며, 정서나 문학적인 재능 또한 거의 비슷비슷했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놀란 것은, 수상작으로 뽑은 작품 모두가 학생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점이며, 또 이번에 상을 받게 된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한국문단에 분명 큰 재목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사랑 꿈나무』들에게 나는 다시 한 번 무한한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힘껏 보내드립니다.

심사위원장/한내문학회장 최 양 희

(시인, 소설가, 평론가)

..... 차 례

금 상 · 물의 소중한 · 미산초교 5학년 백석희	19
은 상 · 물아 사랑해 · 미산초교 5학년 이유진	22
· 이제는 잠가 주세요 · 미산초교 6학년 오한솔	25
동 상 · 물과 자연의 소중한 · 미산초교 6학년 김보람	27
· 우리들의 자연과 물 · 미산초교 5학년 강민숙	31
·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 미산초교 6학년 현혜진	33
한내문학상 · 깨끗하고 맑은 물 · 미산초교 6학년 김수림	35
· 소중한 물 · 미산초교 4학년 김우선	37
축 시 · 보령 호에 모인 친구 · 童詩人 최도진	39
금 상 · 물을 지고 오르락내리락 · 웅천초교 6학년 김채은	43
은 상 · 바다에 많이 버려진 쓰레기 · 웅천초교 5학년 김소진	45
· 얼마 남지 않은 물 · 웅천초교 5학년 신용혁	47
동 상 · 우리의 보물은 물 · 웅천초교 5학년 김진석	50
· 소중한 우리의 물에게 · 웅천초교 5학년 김기현	53
· 자 연 · 웅천초교 4학년 김시림	55
한내문학상 · 물에게 · 웅천초교 5학년 임찬경	57
축 시 · 물빛 공원에서 · 홍성수	59
금 상 · 소중한 자연 · 주산초교 5학년 이원규	63
은 상 · 지구의 두 얼굴 · 주산초교 3학년 이서연	66

· 산업단지 유치! 좋아해야 할까? · 주산초교 6학년 이경아.....	68
동 상 · 자연의 두 얼굴 · 주산초교 5학년 추교한.....	70
·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 주산초교 6학년 박은주	72
· 모든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 주산초교 6학년 이유영	75
한내문학상 · 물의 소중한 · 주산초교 3학년 이유정	77
· 자연의 색 · 주산초교 4학년 이현지	79
축 시 · 보령 물빛공원 · 배 윤 희	80
· 빗물의 보금자리 · 오 금 자	81
소 설 · 호랑이 황팔도 · 최 양 희	83

미산초등학교

■ 금 상

물의 소중함



미산초교 5학년
백석희

여름썸에 있었던 일이다.

학교를 갔다 오는데, 엄마께서 위집에서 물을 떠
나르고 계셨다. 그래서 나는 엄마께 여쭙어 보았다.

“엄마 뭘 해?”

그러자 엄마는

“지금 우리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위집에서
물을 나르는 중이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물을 쓰
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집에 돌아와서 물을 틀어보았다. 그
런데 정말로 물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무척 절망이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만 있으면 물이 금방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상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책이나 TV에서 보던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은 시간이 지나도 뒤돌아 오질 않았다. 물이 다른 곳으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바람처럼 휙~ 하니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자그마한 희망이 생겼다. 다용도실에서 물이 조금씩 나왔기 때문이다. 윗집에서 물을 떠 나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 막 물이 나오니 우리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그래서 큰 대야 2개를 가져다 놓고 물을 받기 시작했다. 꽤 많이 나와서 금방 찰 것 같았다.

그런 후- 엄마는 그 물로 설거지와 밥을 하고 나서 아무 걱정 없이 저녁을 다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물이 잘 나올 거라는 상각을 하고 말이다.

그렇게 물이 나오지 않게 된지 이틀이 되었다. 그때 엄마께서 어디를 가셔서 안 계셨다. 그런데 그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엄마께서 들어오셨다.

그리고는 엄마는

“이제 물이 나올 거야! 지금 고치고 왔어!” 이러시는 것이다.

나는 그 말쑈를 듣고 물을 틀어봤더니 정말 물이 나왔다.

나는 그때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 땀을 때보다, 야구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땀을 때보다 더 기뻐했다.

인과응보란 말이 정말 딱 맞는 거 같았다.

이렇게 물이 없는 생활을 해보니 무척 힘들었다. 그래서 그때 물에 대한 검색을 해보았더니, 물을 절약하는 방법이 무척 많았다. 욕실에서는 변기에 페트병이나 벽돌 넣기, 주방에서는 절수기라든가, 아무튼 그런 것을 설치하면 물을 좀 더 아낄 수 있다고 읽었었다.

우리 집은 아직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집도 저번 여름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리고 지난번에 <물사랑>이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광고에 이런 말이 나왔다.

“나 한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립시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정말 나 한사람이라도 아끼자>

라는 생각을 가지면, 정말 물을 아낄 수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그게 소비량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였다. 나 한사람이 소비량을 줄여서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 은 상



미산초교 5학년
이유진

물아 사랑해

한 3학년이었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금산에 있는 절벽강으로 놀러갔다.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고 있는 절벽강을 생각하며
간 그 곳!

“아 냄새!”

가지마자 나온 이 소리는 날 실망시켰다. 커다란
기대도 모두 무너진 버린 것이다.

아름다움 줄만 알았던 적벽강은 쓰레기가 여기저
기 널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먹은 과자 쓰레기를 물속에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되지 못한 생각 때문에 아름답게
흐르는 물도 오염되고 새들이 놀러와 노래 부르던
숲도 모두 쓰레기들의 마을이 되어 있었다.

적벽강이 불쌍했다.

옛말에 ‘물 쓰듯 한다.’ 이런 말이 생긴 것을 보면 옛날사람들도 소중히 하지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고 싶었다.

물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한가지다. 씻을 때도 마실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모두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이었다. 갑자기 단수가 되어버린 우리 집에서 난 당황했다. 그나마 담아놓은 물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 그 물도 없었다면 아마 견디지 못할 것이었을 것이다. 겨우 하루 이었지만,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날이 되었었다.

우리나라에도 물 부족 국가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물 절약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분명 몇 년 뒤에는 물이 정말 나오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물론 나도 실천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조금씩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미래에는 물이 안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물이 가장 깨끗한 물이 나오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우리 엄마는 자연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을 보면 항상

“와! 이빠라!”

하고 감탄사를 내뱉으신다.

아마 스스로 생긴 아름다운 것이라 더욱 좋아하
시는 것 같다.

하지만 도시의 발달, 과학의 발달로, 점점 자연을
훼손시키고 없애버리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슬퍼진다. 그리하여 나는
앞으로 자연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나부터 노력해야 나가야겠지.

이 시간 참 보람된 시간이었다. 덕분에 물과 자연
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좋은 날이었
다. 나부터 시작해나가야지. 그러면 10명이 5년 뒤엔
100명이 물을 사랑하게 될 테니까.....

‘물아! 내가 사랑해 줄게! 꼭 깨끗하게 다시 돌아
오렴. 너의 빛나는 그 모습으로 말이야!’

은 상 ■

이제는 잠가 주세요



미산초교 6학년
오한솔

물이 없으면
길가에 피어 있는
향긋한 코스모스도 없겠죠?

물이 없으면
나뭇가지에
앉아서 노래하는
작은 새도 없고

물이 없으면
걸어 다니는 물통
사람들도 살 수 없어요.

물이 없으면
점점 말라가는 지구.....

혹시
당신의 수도꼭지는
잠겨져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나요?

이제는
잠가 주세요!

물방울
하나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물과 자연의 소중함



미산초교 6학년
김보람

나는 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다. 나는 물을 정말 아까운거 같다.

제주도 사람들은 물이 조금밖에 없어서 바닷물을 먹고 살기도 한다. 자연은 만약 자연이 파괴되면 아마 우리나라는 쓰레기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 물을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 자연이 파괴되면 자연 또는 모든 생물들이 모두 다 살지 못할 것이고 이 우리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나는 예전에는 물이 아까운 줄 몰랐다. 그래서 맨날 모르고 틀어 놓고 그냥 화장실 수도물을 틀어 놓고 그냥 나갔다.

어느 날 TV를 보았는데 그 나라는 비온 후 웅덩이 물을 마시곤 하였다. 그 나라는 전쟁 때문에 한국에 방을 공짜로 얻어서 살고 있었다. 물의 소중함 첫째, 식물도 물이 필요하고 둘째, 식수가 없으면 우

리들도 살지 못하고 셋째,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도 살지 못한다. 넷째, 음식을 만들 수도 없다. 이래서 물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다. 난 물의 소중함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물을 낭비하고 있었다. 나는 자연을 파괴하면 냄새도 심할 것이다. 나는 자연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 난 쓰레기 줍고 자연에 대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물론 자연의 모든 것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이 없어지고 이 세상도 파괴되면 우리들은 말라서 죽을 것이다.

자연 1급수에 사는 가재, 플라나리아 등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 난 이 모든 생물들을 죽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모든 쓰레기들을 치우고 또 치워야 한다.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치우고 또 치우는 방법밖에는 없다. 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다. 물과 자연이 없으면 식물, 물고기 등의 생물들이 모두 죽고 파괴된 것이고 모든 우리나라 사람도 살지 못하고 모두 죽고 멸망할 것이다. 나는 물과 자연을 사랑하고 아꼈 것이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심해지면 모두 억울하게 죽을 것이다. 억울하게 죽으면 아마 후회할 것이고 나는 그것에 대하여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또 치워야 할 거 같다. 쓰레기를 안치우고 하면 물 자연이 없어진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

리나라를 더러운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닥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감옥에 가서 1달 동안 감옥에 가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될 것 같다. 나도 이제부터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절약할 것이다. 물을 조금씩 쓰고 절약할 것이다. 난 자연을 파괴하면 숨도 쉬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TV를 볼 때 가끔씩 쌀뜨물에 머리 감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아깝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쓴다. 나는 자연재해 시키고 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앓 볼 것이다. 우리나라를 앓 보는 것이 나는 싫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깨끗하다고 들었다. 그런데 나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그렇게 조금 마시고 기운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쓰레기통을 곳곳에다 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쓰레기 통으로 버리지 않고 다른 곳에다 버린다. 그래서 자연은 쓰레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된 것이다. 사람마다 물을 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을 얼마나 쓰는 줄 모른다. 자연이 없으면 나물도 못한다. 반찬이 없으면 모든 것이 제멋대로 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세수, 손, 이빨 닦은 것을 조금씩 낭비하여서 쓰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고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나쁜 사람이

다. 사람들은 모두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좋겠다. 특히 수영장은 물을 제일 많이 쓴다. 물을 많이 쓰면 나중에 많은 물을 쓰고 버린다. 물을 놓고 쓰는 것이 아깝다. 자연을 사랑하면 나는 자연을 아끼고 보호할 것이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둘째, 흙을 파지 말자. 셋째, 물가주위에 쓰레기를 놓고 가지 않기. 이 세 가지 조건만 지키면 우리나라는 깨끗해질 수 있다. 나는 물가에다 오물을 버리거나 떠내려 오면 쌓이는 것이 너무 많다.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쌓이기도 해서 음식을 되도록 음식물을 다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음식물을 버리면 냄새도 나고 더러워서이다. 나는 음식물을 이제부터 버리지 않고 다 먹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음식물도 조금씩 적당히 받고 물도 조금씩 쓰고 자연 더럽히지 않고 쓰레기를 보면 줍고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원에 가면 쓰레기가 널려 있다. 막 학생들이 왔다 담배를 피워서 궤초를 버리고 가곤 한다. 그래서 자연 지키고 물을 아껴야 한다.

등 상 ■

우리들의 자연과 물



미산초교 5학년
강민숙

우리들의 자연 우리가 가꾸고
우리들의 물 우리가 만들죠.
만들고 가꾸는 중 방해꾼은 오염
오염문제 우리가 실천합시다!

우리들의 자연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자연이 서서히 오염되어 가면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자동차의 매연, 공장의 폐수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 아주 조그마한 일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우리의 ‘자연’ 하면 생각나는 ‘나무’는 사람들이 종이, 나무토막, 땀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무를 베어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역할의 나무가 줄어들자, 우리가 있는 이곳 지구는 현재 이산화탄소 문제에 의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자연에 대한문제, 오염문제, 지

구온난화 같은,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들의 불편을 줄여주려고 할 때쯤 우리들은 그냥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며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도우는 것조차 할줄 모르는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불릴지도 모르며, 우리는 이 지구가 오염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사회에서 모든 책임을 묻게 할 수 없으며 사회에게 모든 어려움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에게 어려움을 덜어주어 아끼고 사랑을 해준다는 것이 그렇게도 많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회에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자연을 자기가 먼저 사랑하기, 자연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알아보기, 자연을 사랑하고 정보를 얻었으면 실천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할 줄 알아야 하며, 물을 아껴 쓰며, 가까운 거리는 운동 삼아 걷기, 올바르게 알고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또 그밖에도 오염시키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연구소에서는 태양, 풍력 조력, 파력, 지열,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화석 에너지 수력 등, 여러 가지가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실천하고 노력하면, 분명 우리들의 자연사랑, 자연문제, 오염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만 하면 됩니다.

등 상 ■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미산초교 6학년
현혜진

나는 요즘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다.

물 없이 살 수 있을까? 나는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목이 마르다. 하지만 그 소중한 물이 없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실제로 목욕탕, 식당 등은 물을 수도 없이 쓴다.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되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 세상엔 물이 한 방울도 안 남을 것이다. 이렇게 끔찍한 미래를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발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선 하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서 세수한다. 나는 양치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엄마께서 말씀하신다.

“혜진아! 그러면 물이 너무 아까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그러실 때마다 나는 잔소

리라고 생각하고, 듣기 싫다며 소리 지른다. 하지만 이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돌, 빨래나 샤워 등을 할 때 세제를 적게 사용한다. 그로 인해 물이 오염된다. 냄새도 나고, 병이 들 수 있다. 제발 사삼들이 물의 소중함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살피줘야하는 존재 물, 바로 자연이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많다. 도로건설을 위해 산을 깎고, 나무를 잘라서 종이를 만든다. 사람들한테 편하지만, 자연한테는 되게 치명적일 것이다. 또 울창한 숲에서 총을 들고 새나 동물들을 잡는 사냥꾼 등, 동물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사람 정말 나쁘고 싫다. 동물은 숲이나 나무한테 가족 같은 존재인데 동물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다 눈물이 난다. 숲에 생물이 죽거나 없으면 자연이 파괴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가을에 일어나기 쉬운 산불! 산불이 나면 동물도 죽고, 나무도 불타 없어지고, 이쁜 꽃들도 없어진다. 그리고 내 마음도 탄다. 왜냐면 그 숲을 다시 되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자연 속에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 자연이 파괴되면 우리도 없어질 것이다. 자! 우리 모두 물, 자연을 사랑하고, 지킵시다.

왜냐구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



미산초교 6학년
김수림

나는 보령댐 지역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오고갈 때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매일 보령호를 보게 된다. 매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보이지만, 보령호와 보령댐이 없으면 항상 필요로 하는 물을 저장할 수도 없고 학교 오는 길에 아름다운 경치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보령댐이 아니어도 물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아껴 쓰고 깨끗이 서야할 것 같다. 무조건 아무생각 없이 물을 낭비하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진짜 필요할 때 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을 조금씩 아껴 쓰고 계획 있게 쓰면 물을 더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물은 자연이기 때문에 땅을 깨끗이 보호하고 청소하는 것처럼 아껴줘야 한다. 자연에 물을 채워 가꾸고 맑은 물을 바라보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맑아질 것이다.

물을 아껴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설거지를 할 때 물을 적당히 받아놓고 쓰는 방법과 세수할 때나 걸레를 빨고 난 물이나 세탁기 등을 적당히 사용하면서 아끼는 바람직한 행동이다. 물을 아껴 쓰고 깨끗이 쓰고 자연을 이롭게 하면서 물 속에 사는 생물들도 생각해 줘야한다는 것이다.

물속에 사는 여러 가지 생물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관련이 있다. 다리 밑에 사는 생물들은 우리가 쓰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을 생각하면 정말 깨끗이 써야 당연한 것이다. 여러 곳에 물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물을 아껴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집에서도 아껴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더 생각을 깊이 판단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조금만 아껴 쓰라고 말 해 줄 것이다. 설거지 할 때, 걸레를 빨고 남은 물을 알뜰하게 쓰는 것이 물에 대하여 몇 몇할 것이다. 물론 자연에도 관련이 있고 생물에도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하고 써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물은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 앞으로 물을 사랑하고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잘 실천할 것이다.

소중한 물



미산초교 4학년
김우선

물은 우리의 생명 물은 우리의 힘이다.

물은 목숨보다 소중한 물이다.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거다.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사람들은 물을 아껴 쓰지 않는다.

일단 물을 절약하여야 한다.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샴푸, 세제 등을 조금씩 쓰기!

둘째, 기름 묻은 그릇은 휴지로 닦은 다음에 설거지를 한다. 물이 오염되면 사람들도 얼굴을 찡그리며 지나갈 것이다. 오염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인데,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 4학년 교과서에서 나왔다. 심한 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하여 고생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평소에 부족함 없이 써오던 물이 갑자기 부족하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고. 과학자들은 가뭄이 들지 않더

라도 물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일단,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양치를 하거나 세수를 할 때에 양치 물을 컵에 받아서 쓰고 세숫물을 세면대에 받아서 쓰기! 둘째, 수세식 변기에 벽돌이나 물을 담은 병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셋째, 설거지나 빨래를 할 때에는 마지막에 행구는 물은 그냥 버리지 말고 이 물은 걸레 빨 때나, 꽃밭에 주는 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모두 실천하였으면 좋겠다. 무론 나도 실천해야겠다. 그리고 물도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 우리 동네 잔치였다. 우린 수영하러갔다. 그런데 떡꼬치 놀이 했다. 막대를 꼭 잡았다. 그런데, 막대를 놓쳐서 빠졌는데, 까치발을 들어서 살았다. 근데 이웃집 동생이 키가 좀 작아서 날 잡았다. 그땐 너무 재미있었다. 그 물이 없었다면 우린 모두 재미있게 놀지 못하였을 거다. 아름다운 자연의 물은 우리의 힘이니 물과 자연 모두 사랑해야겠다.

보령 호에 모인 친구

한 방울 뚝
두 방울 똑똑
옹달샘 고향 떠나
넓은 개천에 조잘 조잘

즐거운 여행길
개울가에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꽃

구불구불 산모퉁이
바위틈 타고 내려와
가재와 송사리 떼 만나며

새로운 친구들 반가워
희망이 넘실거리는
보령호에 둥지 틀었네.

童詩人 **최 도 진**
(심사위원, 한내문학회)



웅천초등학교

■ 금 상

물을 지고 오르락내리락



웅천초교 6학년

김채은

지난 여름 이맘때 일이다.

우리는 지난 여름 이맘 때 쯤에 옛날 살던 집의 바로 윗집인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다. 우리 가족들은 이삿짐을 모두 옮기고 짐 정리를 한 후에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틀면서 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10초 15초가 지나도 물을 떨어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했다.

“여보, 여보! 물이 안 나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당신이 한번 물어봐!”

아빠는 한참동안 드라이버 등을 만지더니 결국을 포기를 하시고, 양수기 고치는 집에 전화를 하였다. 전화를 할 때는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 같았지만, 양수기 고치는 집에서는 내일 오후에나 온다고 그랬다.

“아빠 우리 그럼 저녁밥은 어떻게 먹지?”

“김채은! 지금 물이 안 나오는데 밥이 먼저냐? 에 휴~ 이 바보야!”

나는 쾌심한 마음에 주먹을 불끈 쥐고 머리 한대를 쿵- 박아주었다. 엄마 아빠는 아랫집에라도 물을 뜨러 간다면서 양동이를 두개 들고 원래 살던 그 집으로 발 거름을 옮기셨다.

한 5분 뒤에 엄마 아빠는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돌아오셨다. 그리하여 양동이에 있는 물로 우리 가족은 샤워를 하려고 했으나 불이부족해서 가족 한명이 아랫집에 가서 씻고 오기로 했다.

에 휴~ 맨 날 하던 샤워인데도, 이렇게 해야 된다니 내가 봐도 불쌍해 보였다. 그 이후에도, 나는 저녁마다 양동이에 물을 담고 와서, 10번은 넘게 왔다 갔다 했지만, 물이 해결되지 않아 이틀 동안 물을 길러다 씻게 되었다. 나는 그 덕에 ‘여기 이사 온 것이 맞는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틀 후, 양수기가 고쳐지고, 샤워와 화장실 등, 이제 모든 것이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물이 없는 하루 이틀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에서, 진자로 난 이번기회로 인해 물의 소중함을 느꼈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여러 가지 물에 대하여 배운 생각이 났다. 난 이번일로 하여금 수자원 공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가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많은 절차를 밟아서 깨끗한 물이 만들고 있는 것을 나는 나중에 알게 되면서 다시 한 번 그 고마움을 알게 됐다.

은 상 ■

바다에 많이 버려진 쓰레기



웅천초교 5학년

김소진

난 지난번에 여름피서를 바닷가에 갔다. 그때는 한참 머드 축제가 있던 시기였다. 사람들이 한참 머드축제를 즐기느라 놀고먹고 정신이 없었다.

머드축제가 끝나고 또 한 번 바다에 나갔는데, 바닷가는 엉망진창이었다.

소주병이 널려있었다. 엄마께서는

“미국사람도 한국 사람들같이 술을 먹고 술병을 버리지 않아서 바닷가에 술병이 많은 거야! 정말 너무하지?” 라고 말씀하셨다.

바닷가에 또 쓰레기는 넘쳐 나왔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 꽤쾌한 냄새도 심하게 났다. 엄마는 정말 너무하다면서 바닥에 널린 많은 쓰레기 중 비닐봉지를 찾아서 쓰레기 하나하나 주우셨다.

그 모습을 명- 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나도 엄마를 도와 쓰레기를 주웠다. 우리가 쓰레기를 주워도, 주워도 쓰레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서, 나는

“엄마 그냥가자! 이정도면 많이 주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자 엄마는

“한번 주은 것 끝까지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안 주우면, 누가 줘겠니?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바다에겐 아주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난 참 훌륭한 엄마를 뒀어’

하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정말 너무해. 음식 먹으면, 쓰레기를 잘 버려야지, 바다도 오염되고, 그러면 우리들은 바다에 놀지도 못하는데.....’

올해는 머드축제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지난해보다 깨끗했으면 좋겠다. 아니 깨끗했을 것이다. 물론 다음해, 다음해 뒤에도 말이다.

바닷가뿐만 아니라 이번기회를 통해 물의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삼푸, 린스, 세제 등을 조금씩만 쓰고 공장에서는 폐수를 흘러 보내지 않고 정화해서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나 혼자 노력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내 주변부터 조금씩 노력한다면 깨끗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은 상 ■

얼마 남지 않은 물



웅천초교 5학년
신용혁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지구상에 있는 물이, 1ℓ짜리 병에 있는 물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커피스푼 1순갈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지구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이었다.

물을 쓰고 수도꼭지를 잘 잠그기와, 변기에 벽돌 넣기, 양치질 할 때나 세수 할 때, 물 받아쓰기 등으로,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들을 통하여, 많은 물을 절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물은 우리에게 전기를 만들어 제공해 주고, 여러 식물을 키우는데 많은 영양을 끼친다. 또 우리가 물을 먹지 않고 생활 할 경우 3일안에 죽는다고 한다.

물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도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등으로 커피 한 스푼의 적은 양의 물을 오염시키는 우리들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나도 이 어리석은 사람 중 한명이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만 물을 열심히 아낀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럼 공장의 폐수와 가축의 오물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바로 폐수처리장과 가축 오물 처리장을 만들면, 가축 오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가거나 공장 폐수가 무단으로 버려진다고 해도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우리 엄마와 아빠의 말씀을 들어보면, 물을 사먹는 일은 상상화애나 나올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을 보면 물을 사먹는 일이 너무나도 흔한 일이다. 또 흘러내리는 강물을 그냥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깨끗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을 보자. 아무 강물을 먹었다가는 여러 병이나 피부병에 걸린다. 현재는 강의 물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과학의 발달로 공장이 많아지고 있어 폐수와 매연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1ℓ 짜리 물통에 커피 숟가락 한 스푼은 너무 심각한 것 같다.

집에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알고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게 될 수 없다면 인간들은 모두가 목이 말라 죽게 될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선 우리 모두 물을 오염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 등 상



웅천초교 5학년

김진석

우리의 보물은 물

자연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연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초여름 무렵에 나는 가족들과 가까운 강가에 피서를 갔다. 그 강 주변에는 캔, 물병, 음식물 쓰레기가 주변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이런 쓰레기들을 보고 아~ 이런 물에서 어떻게 노냐고 투정을 부렸지만, 내 머릿속에는 옛날에 내가버린 쓰레기들이 하나 둘씩 떠올랐다.

“이거 내가버린 쓰레기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쓰레기를 하나 둘씩 주워 나갔다. 그렇게 거의 한 봉지를 짝 채울 무렵 우리 형이 쓰레기를 물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형에게 말했다.

“형이 버린 쓰레기 하나가 우리가 먹는 생활수를 오염시킨다.”

라는 말을 하니까, 형은 머리를 긁으며 나뭇가지를 주어 쓰레기를 건져냈다.

나는 흐뭇한 모습으로, 우리 형이 앞으로 물을 아끼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속에 놀고 있었다.

그 후-

나는 운동을 한다고 산에 올라갔다.

그런데 어디선가 팡! 팡! 하는 소리가 났다.

알고 보니, 어느 아저씨가 새총으로 꿩을 잡고 계셨다. 하지만 다행히 한 마리도 못 잡으신 것 같았다. 정말 다행이었다. 그대 나는 새가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힘없이 살다가 죽으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그 아저씨께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하는 것은 정말 나쁜 행위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냥이라는 단어가 없는 자연과 어울려 사는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주일후-

나는 마을을 건너가고 있었다.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뽕뽕 이발한 산이 있었다.

이유는 자신의 소유로 되었다고 나무를 깎고 밭으로 만든 것이다. 또 도로를 뚫는다고 마산을 깎는데도 있었다. 자신의 소유가 됐다고 사람들의 편리

함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이 생활화하는 우리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슬프고 아쉽다.

요전에 일어난 태안 앞바다처럼 오염이 많이 된 우리나라, 아니 우리세계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앞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생활 식수를 아끼고 사랑하여 자연과 더불어 가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연과 가까운 나라 1위가 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의 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비누, 세제, 샴푸, 린스 등을 조금씩 쓰고, 생활 쓰레기를 줄려야 하겠다.

꼭! 화이팅!

등 상 ■

소중한 우리의 물에게



웅천초교 5학년
김가현

물아 안녕? 난 웅천 초등학교에 다니는 김가현 이
야. 난 오늘 백일장 대회를 통해 너에게 편지를 쓰
게 되었어.

요즘 들어 문득 네 생각이 많이 나더구나.

우리나라에 네가 부족하다는 점을 잊고 널 함부
로 사용했어.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너에게 미안
해지고 네가 없을 대를 생각하면 자꾸만 후회를 하
게 되었어. 이제 늘 너를 생각하면서 아껴줄게.

난 이번 소풍에도 또 널 보았어. 그때만 무지 더러
운 모습이었어, 그런 모습을 보고 널 피했어. 그런데
문득 행각이 들더구나.

‘미래에는 저런 물만 남아 저런 물만 먹게 될
꺼야!’

요즘 네가 더 나의 마음속에 고민으로 차고 있어.
정말 네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네가 오염되어서 우리 지구의 물

전체가 1ℓ이면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커피스푼 1개 정도 밖에 안 된다는데.....

난 그 사실이 그제 거짓으로만 바라고 있었어. 그런데 현실이라는 점에 무척 슬퍼졌어.

이런 점을 봐서 나는 너에게 미안한 점이 무지 많아. 낭비하고 오염시키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니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너를 아껴주고 깨끗이 쓰기로 노력하면서 소중히 대해 줄게

작은 일부터 큰일 까지 아니, 지금부터 아끼고 깨끗이 다뤄서 널 행복하게 될 수 있게 해 줄게.

물아! 이제 네가 미안하지 않도록 많이많이 아껴 줄게.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나라도 아껴주면서 힘들지 않게 해줄게.

정말 노력해 볼게.

물아 그럼 맑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2008년 10월 15일 수요일

가현이가

■ 동 상

자 연



웅천초교 4학년
김시림

보령댐은 정말 자연 같다.

왜냐하면 보령댐에 와보니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푸르고 예쁜 잔디도 많이 심어져 있다. 그리고 물도 많다.

나는 옛날에 보령댐에 많이 와서 엄마와 오빠랑 물놀이도 같이 재미있게 놀았다.

그런데 지금은 물놀이 하는 곳이 철조망으로 막혀져 있다. 그리하여 물놀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보령댐은 자연을 키우는 곳 같다. 그리하여 나는 그 이후에는 보령댐에 올 때는 축구공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가지고 오는데, 오빠는 축구공하고, 나는 인라인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보령댐에 있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와서 나는 보령댐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령댐은 처음에는 더럽고 쓰레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쓰레기도 줄어들고 더러운 것들도 없어졌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와서 재미있게 놀면서 맑은 공기도 많이 마시고 가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자연도 좋아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더럽히지 않아야겠다.

물은 참 소중한 것
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물을 사용해야 할 때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한다.

그리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쓰면
흘러가는 물이 많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샤워 할 때 물을 받아서
샤워해야 한다.

그래야 물이 낭비되지 않고
물 한 방울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물에게



웅천초교 5학년
임찬경

물아 안녕?

나는 웅천초등학교 5학년 임찬경 이라고 해!

난 별로 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적이 없었어.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많이 쓰고 수도꼭지도 잠가두
지 않았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것도 알고
말이야.

언제나 당연한 것처럼 나는 너를 그렇게 흔히 썼
어. 그러면서도 나는 너한테 고맙다고 생각한 적도
없으니 정말 미안해.

언젠가, 우리가 환경체험 간 적이 있었어.

놀이공원에서 물배를 댔는데, 위로 올라가서 내려
갈 때 보니 물이 정말 더럽고도 너무 오염돼 있는
것 같았어.그리고 보니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 질 수
밖에 없었지. 그리고 정말로 짜증났어.

보령댐 같은 곳에 와보니 물도 맑고 공기도 좋아
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말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인터넷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보았어. 지구의 물이 페트병 1ℓ 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량의 물은 커피 한 스푼의 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작은 량의 물은 얼마나 오염 시켰는지 알 수 있었어. 그러니 정말로 미안해.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물을 쓰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마구 쓰면서 얼마나 오염시켰나?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후유~ 지금까지 너에게 미안한 일만 한 것 같아.

내가 너에게 편지 쓰게 됨으로써, 나의 잘못했던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던 것 같아. 이제 12살인데, 너무 어린애 같이 행동한 것 같아. 깨끗한 세상을 만들려고 깨끗한 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께도 정말 죄송하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분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너를 아껴 쓰고 사랑할게.

물, 자연을 사람들이 아끼는 세계가 오면,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 지구가 선물해준 아름다운 선물, 물아! 사랑해!

물빛 공원에서

하늘빛 가득담은 보령호
물빛공원 개관식 날

초롱초롱한 꿈나무들
해맑게 풀어낸 물 사랑

모두 행복에 젖은 모습으로
자연과 함께 어울린 자리

한마음으로 되새기는
넉넉한 생명수 보령호에

곱게 물든 가을도 안겨드니
하늘도 덩달아 하나 되었네

홍 성 수

(심사위원, 한내문학회)



주산초등학교

금 상 ■

소중한 자연



주산초교 5학년
이원규

우리 인간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연에게 도움만 받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물이 나오고, 자연에서 토지가 나오고, 그리고 자연에서 많은 식량과 그 모든 것이 다 자연에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데, 우리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오염시킨 물들, 유조선 침몰 때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 산림파괴 등이 자연의 구석 구석을 아프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때로 죽고, 산새나 야생 동물들이 차에 치어 죽고, 식물들은 시들어 죽는 등 자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인간들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이런 일을 경고하려고 자연재해를 일으켰습니다.

태풍, 지진, 집중호우 등의 자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오히려 이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자연을 파괴하고 더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온난화> 때문에 더욱 파괴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는 우리 인간들의 지나친 개발, 자연 파괴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별,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태양의 자외선이 지구에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그 온난화가 주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양식장 파괴, 적조현상, 피부암에 걸릴 확률을 증가시키는 등, 피해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게다가 식수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은 온난화가 같이 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속담에 '엮친데 덮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엮질러졌는데 그 자리에 또 물을 엮지르면 더 많은 양의 물을 닦아야 함으로 더 닦기 힘들어 집니다. 이 이치는 자연 재해와 온난화는 우리 인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는데, 더 파괴해서 온난화까지 오고 그것을 가라앉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도 지지 않고 그것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자업자득’ 과 같습니다.

이러한 태양의 자외선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구에 들어온 온실가스를 방출하려면 우선 자연을 살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무가 그 자외선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좋은 산소를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온난화를 막기 위한 연구입니다.

앞으로 온난화가 사라지고, 자연이 다시 살아난 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산초교 3학년
이서연

지구의 두 얼굴

옛날에 아름다운 집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는 아름다운 지구였답니다.
 지구는 날마다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1년, 2년이 지나자 환경이 오염 되에
 지구의 몸이 안 좋아 졌답니다.
 그것 때문에
 우주 전체가 쓰레기로 차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지구의 얼굴을 두 얼굴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영영 울고 있습니다.
 우는 얼굴과 환하게 웃는

그런 얼굴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엉엉 울고 있습니다.
지구도 그렇게 이 얘기 했다고 진짜?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구의 잘못이 아닌
사람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죽는 사람이 따로 없으니
그런 현상이 나올게 분명하지요.
그건 바로
〈자연파괴〉 랍니다.

■ 은 상



주산초교 6학년
이경아

산업단지 유치! 좋아해야 할까?

봄에는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내려 쬘고, 여름에는 강가에서 실컷 물장구 칠 수 있는 곳은 나의 삶의 터전 집이다.

쾌적한 자동차 매연도 깡통이나 휴지가 나뒹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나의 고향이 자랑스럽다. 정신없이 빠른 자동차 대신 느릿느릿한 경운기가 있고 높은 빌딩대신에 짙으로 덮은 외양간이 정겹다.

이렇게 고요하고 정겨운 시골에 빨간 글씨로 물이 들어버린다.

‘주산면 산업단지 유치!’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일까?

이제 곧 가을이 되어 산과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면 정말 예쁠 텐데.....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풀과 나무가 모두 뽑혀버릴 것이다.

그런데 왜 모두 하나같이 산업단지 유치를 외치

는 것일까?

나무 수백그루가 뿔히고 풀 수천뿌리가 뿔혀나갈 텐데!

맑고 깨끗했던 나의 고향의 산들이 깎기고 도로가 어지럽게 생기고 내가 살던 고향집이 무너져서 공장이 되어버린다니! 말을 이을 수 없을 만큼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다.

미래에 지금의 고향을 볼 수 없다는 일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상도 생각도 할 수 없다,

지금은 나에게 그냥 들판이고 밭일뿐이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면 공장매연에 커다란 공장으로, 나뭇잎, 모래 한 톨 보기 힘들 것이다.

미래의 고향이 제발 나의 생각처럼 되지 않기를.....

■ 동 상



주산초교 5학년
추교한

자연의 두 얼굴

보통사람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물론 틀린 말을 아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해로움보다는 이로움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이 남는 봄, 가을의 추수, 여름의 태풍이 사람들 기억에 많이 남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자연이 주는 해로움과 이로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한다.

먼저 이로움에는 나무가 있어 우리가 숨 쉬게 해 주고, 동물들이 있어, 우리가 먹을 고기가 있게 해준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우리들을 재미있게 해준다.

자연이 주는 해로움에는 봄에는 황사, 여름에는 태풍, 가을에는 산불, 겨울에는 폭설로, 각 계절마다 자연피해가 있고, 그밖에도 지진, 산사태, 해일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우리 인간은 이로움을 많이 알아야 한다.

자연의 해로움은 우리 인간들 때문인지도 모른다. 원래 자연은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려고 했지만,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너무 험하게 써서, 자연이

“너희들도 한번 당해 보라”

하는 생각을 먹었을지 모른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해로움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자연을 험하게 썼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자연을 소중히 다룬다면, 언젠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자연재해를 모두 없애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 자연을 우리 몸처럼 소중히 다루면, 자연이 우리에게 그 모든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도 줄지 모른다.

Ⅱ 동 상



주산초교 6학년
박은주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이다.

나는 이렇게 물이 넘쳐나는데, 왜 물 부족 국가라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하지만 책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았다. 하지만 그런데도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지구가 점점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물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우리나라와 이 지구의 물이 모두 사라질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아껴 쓰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하고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어쩌면 진짜로 우리지구에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이 없다면 목욕은 물론, 양치질이나 밥 먹기 등, 아무것도 전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물이 깨끗하지 못하니 물 한 모금조차 맘 놓고 먹을 수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물도 부족하고 물도 깨끗하지 못하니,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다. 하지만 이 도든 상황은 인간들의 잘못이니 지금이라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

물을 아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한번 사용한 물은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자. 쌀을 씻거나 손을 씻고 남은 물은 버리지 말고 한번 더 사용 할 수 있다. 쌀을 씻고 난 물을 화단에 물을 주거나 하여 물을 아낄 수 있다.

둘째, 양치질 할 때는 물을 컵에 담아서 사용하자. 물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계속 물을 틀어놓고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낭비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절약 할 수 있다.

그러니 모두 물을 아껴서 사용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물까지 깨끗하지 못하다. 물도 부족한 데다 깨끗하지도 못하다니.....

하지만 물도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도 깨끗해 질 수 있다.

적은 냇의 빨래는 손으로 뺀다든지 합성세제 사용을 줄인다든지 등, 작은 실천만으로도 물은 충분

히 깨끗해 질수 있다.

나도 이 백일장을 통해 조금이나마 물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물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물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물이 더럽혀 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나는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과 물이 가장 깨끗한 곳 등을 알아볼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도 부족하고 물도 깨끗하지 못하니,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인간들의 잘못이니 지금이라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

물을 아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한번 사용한 물은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자. 쌀을 씻거나 손을 씻고 남은 물은 버리지 말고 한번 더 사용 할 수 있다. 쌀을 씻고 난 물을 화장에 물을 주거나 하여 물을 아낄 수 있다.

둘째, 양치질 할 때는 물을 컵에 담아서 사용하자. 물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계속 물을 틀어놓고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낭비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절약 할 수 있다.

그러니 모두 물을 아껴서 사용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물까지 깨끗하지 못하다. 물도 부족한 데다 깨끗하지도 못하다니.....

하지만 물도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도 깨끗해 질 수 있다.

적은 양의 빨래는 손으로 뻥다든지 합성세제 사용을 줄인다든지 등, 작은 실천만으로도 물은 충분

히 깨끗해 질수 있다.

나도 이 백일장을 통해 조금이나마 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물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물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물이 더럽혀 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나는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과 물이 가장 깨끗한 곳 등을 알아볼 것이다.

동 상 ■

모든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산초교 6학년
이유영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글짓기대회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 무엇에 쓰입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 맑은 물을 가르며 신나게 헤엄치는 물고기.....

우리들의 손 하나로 물을 맑고 깨끗하게, 또는 더럽고 냄새나게 됩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죠?”

물은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아껴 써야 합니다.

<물을 아껴 쓰지 않고 마구 쓰는 사람은? 물을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지>

물도 소중하지만 자연도 물 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그 모습 그대로 남게 해주세요.

산 속에 나무, 꽃, 그리고 들판, 이 모든 것들이

요즘 사라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산속에 사는 동물들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고통 속에 파묻혀가고 있다는 소립니다.

우리 모두가 물과 자연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이런 곳들은 지켜질 것입니다.

물을 사랑하고 아끼려면-

1. 쓰레기를 물속에 버리지 않는다.
2. 물을 다 썼다고 무조건 버리지 않는다.

내가 말한 3번째는 다음에 속한다. 쌀 씻은 물로 세수를 하고 그 물로 발을 씻은 다음,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에 넣어서 물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물을 아껴 가면, 2석 3조가 되고 전기세도 절약되어 알뜰하게 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연을 아끼고 사랑하려면,

1. 특히 어른들은 산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합니다. 담배뿐만 아니라 라이터나 성냥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2. 등산을 갈 때 쓰레기가 되는 일회용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가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되돌리면서 아름답게 가꿔간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빛날 것이기에,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맑고 푸르게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물의 소중함



주산초교 3학년
이유정

일상생활에서 물의 소중함은 수도 없이 많다.

옛날에는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물이 너무 없는 경우가 있고 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물로 우리들은 몸이나 물건이 더러워 졌을 때 무엇이든지 씻을 수 있다. 그리고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어느 날, 내가 어머니께 여쭙어 보았다.

“어머니! 만약 우리나라에 물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물은 생활에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없어진다면 안 될 것이라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물은 오염 되서도 안 된다. 물이 오염된다면 씻어도 물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헹수고 일

것이다. 그리고 물을 마시지도 못할 것이 분명한 것이다.

사람은 물이 몸에 70%~80%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몸속의 물이 10%-20%로 뚝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피도 주요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피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물이 부족 한다면 사람들은 결국 건강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5개월 전에 태안에서 기름유출이 있었다. 그래서 태안의 어부들에게는 비극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때, 태안에 기름유출이 됐다고 뉴스에 나왔을 때, 나는 아버지께 여쭙어 보았다.

“아버지! 태안에 사는 어부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태안의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기름
좋이 등으로 기름을 바다에서 떠내야 할 거야.”

나는 처음에는 태안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지만, 기름유출 때문에 태안의 바다가 더러워 졌다고 생각하니 기름을 엮은 그 배가 미웠었다.

나는 그때부터 물은 무척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소중하다. 식물은 거의 물과 흙으로만 살아가니까.

우리 사람과 식물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준 물은 무척이나 고마운 존재인 것이다.

한내문학상 ■

자연의 색



주산초교 4학년
이현지

자연은 초록색이다
자연은 빨간색이다
자연은 노란색이다

초록색은 풀과 산
빨간색은 단풍나무
노란색은 은행나무

산과 풀은 시원하게 해주고
단풍나무는 아름답고
은행나무는 더 아름답고

산 풀은 예쁜 꽃이 핀다
단풍나무는 아기 손 같은 단풍이 핀다
은행나무는 노란색 은행이 있다

바람이 불면 단풍나무는 살랑거린다.
바람이 불면 은행나무는 열매가 떨어진다.

■ 축 시

보령 물빛공원

해맑은 웃음 하나 건져
깨끗이 갈고 닦아
쟁반에 올려두고 싶은 늦가을!

천진난만한 눈망울들이
보령댐 물빛공원 백일장 잔치에
장난감처럼 돌려 앉아

까르르 옥구슬 굴러가는
웃음소리에 바람개비도 놀라
오색걸음으로 반겨주니

전망대 렌즈 속으로 파고드는
물결의 파노라마는
기꺼이 연극배우가 되라 하네!



배 윤 희

(심사위원, 한내문학회원)

빗물의 보금자리

능성이 계곡마다
이슬 먹은 빗물들이 모여
용트림하는 외딴 동네 개울가

밭이랑 메는 농부님
갈증의 위안 수 되고
이마에 맺힌 땀 씻어 주며
여유를 내주는 빗물이 냇물 되어

가는 길목마다
다슬기 친구 물고기 벗되니
몸싸움하던 조약돌도 길 터준
정겨운 인사소리 함께 듣누나

갈대잎 사이 길을
누비고 누비며
꿈을 실고 벼를 실어
찾아온 보금자리 보령 호수여!

환영 나온 꿈나무들
둘러 앉아 벌여진 잔치
보령호 물빛 공원에
꿈을 심어주네



오 금 자

(심사위원, 한내문학회원)

호랑이 황팔도

《물사랑 꿈나무》 창간호에 〈호랑이 황팔도〉란 전설 하나를 어린새싹들에게 꼭 들려줄 맘으로 여기에 넣는다.

그것은 우리고장 (보령시, 미산면, 아미산)에 영겨있던 전설이었다는 점에서, 잊혀져가는 어린 새싹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파릇파릇 햇순 돌아나기 시작하는 아미산자락의 조출한 산장에서 황팔도(黃八道)의 책 읽는 소리가 흘러나간다.

맑은 그 목소리가 조용한 봄의 서곡을 가르며 번져나갔다.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끝임 없는 그 목소리가 서글픈 메아리로 울려나가는 바람에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자연 멈추게 된다. 이사 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 젊은이가 무슨 베일에 가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주위사람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오다가, 나중엔 수십 날 동안 한결같이 애처롭게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에 석연찮

은 관심이 모아지면서 그 소문은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먼 곳에 있는 신도사라는 노인한테도 전해졌는데, 그는 당대의 특이한 인물로써, 사명대사나 무학대사처럼 지리와 천기뿐 아니라 도력이 뛰어난 기인이었다.

신도사는 황팔도란 젊은이한테 호기심을 갖으며, 바깥세상도 구경할 겸 집을 나섰다.

듣던 대로 (아미산)은 하대, 중대, 상대로 이뤄졌는데 신선하고 절묘한 산체가 골이 깊었음으로 그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 또한 수정처럼 맑고 깨끗했다.

신도사는 자기 자신을 간단히 소개하고는

“젊은 선비께서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소?”

하고 물었다.

황팔도는 자신을 억제하면서도, 유명한 신도사라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던 터라 용기를 내었다.

“모진풍파를 겪으면서도, 부인 한사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

아내가 작년 봄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만!”

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유명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찾아다니며 백방으로 약을 썼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어서, 결국

포기하다가.....”

하면서

“어느 스님을 찾아보니 ‘성심으로 불경(佛經)을 열심히 읽으라. 는 그의 <참뜻>을 새겨듣고, 이곳 산장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는 사연과

“불경을 읽은 것도, 사실 아내의 병을 고치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라고 줄줄이 털어놓게 되었다.

그 딱한 사정을 다 듣고 난 신도사는 안방에 누어있는 부인의 표정을 살펴가며 맥을 집어본다.

“.....!”

“도사님! 어떻습니까?!”

“그을 췌.....!

신도사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미인 단명이라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부부간의 정이 너무 좋아도, 사랑이 너무 깊어도, 거기에 문제가 된단 말인가?>

신도사는 슬며시 일어나 배낭을 챙겼다. 황팔도는 더욱 초조한 마음으로 신도사의 옷소매를 잡았지만 소용없다. 그는 가슴이 철렁!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얼굴빛이 굳어진 신도사의 발목을 잡고 목매이며 애절한다.

“아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어떻게든, 제 아내를 살려 주십시오! 예?”

신도사는, 딱한 부부의 맘을 십분 이해했지만 시 들어가는 생명은 이미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다는 점을 직감했다. 그러니 당사자들 앞에서 쉽게 입을 열수도 없는 일이며, 그렇다고 그냥 냉정하게 뿌리칠 수도 없는 입장으로 바뀌졌다.

신도사는 한참을 생각하고 망설이던 끝에 결말지으려고 황팔도를 불러냈다.

“인연이란 정말로 미묘한 것이오.....!”

그러면서 신도사는 조심스럽게 병명(病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부인은 현재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백방으로 손을 써도 결국 서서히 말라죽는 고질병이라” 고, 하더니

“혹여, 개(犬) 100마리 쓸개를 다려 먹일 수만 있다면.....!”

하고, 천근이나 되는 걸음으로 무겁게 길을 떠났다.

“100마리 개(犬) 쓸개라!?”

신도사가 다녀간 이후, 황팔도는 이젠 책도 읽지 않고, 몇 날 며칠 동안 머리 싸매고 누어있었다. 답답한 노릇이었다.

부인은 그러한 남편을 보면서 한없이 미안하고도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어서 빨리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하루하루가 숨통을 더 조이오니 복장 터질 일이다. 더구나 남편이 애지중지 자기

를 더 극진히 아끼고 사랑해 줄수록, 죄를 더 짓는 것 같아서 죽을 지경이다. 끈질긴 목숨 하나 살린다고 텃논까지 다 팔아 남은 재산 정리하고 빈 몸으로 이사 오다시피 산장에 와서 고생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 볼 용기조차 나지 않는다.

황팔도는 그렇게 미안해하는 부인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려 노력했지만 사실 이번만은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자기로선 죽었다 깨나도 값비싼 <개 100마리>를 도저히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기조차 아까운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다.

혼란에 빠진 황팔도는 며칠 동안 누어 있다가 비장한 의식을 깨며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다.

“어떻게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를 꼭 살리고야 말겠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부터의 일은 절대 비밀’로 하고, 부인을 뒤로한 채 신도사를 찾아가, 책(세상에 단 한권뿐인 비보)을 빌려오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천기가 몰린 골짜기를 찾아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리고 책 속의 주술을 외었다. 그러자 옛날의 전설처럼 갑작스러운 기적이 일어난다. 사방에서 거센 돌풍이 몰리며 황팔도의 옷자락을 휘감는다. 긴장상태에서, 설마 했던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 그는 정신을 잃었다. 얼마 후! 주위가 잠잠해지

면서 정신이 새로워지자 황팔도는 다시 한 번 놀랐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 책은 <호랑이로 변신하는 주술>인데, 신도사가 설명해 준대로 정말 호랑이로 변한 거였다. 본인자신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신통력을 입었으니 이제 두려움보다는 천만 다행스러운 자부심으로 하여 용기가 돋기 시작했다.

이 무렵, 개라고 기껏해야 한 동네에 한두 마리 정도밖에 없는데도, 이 동네, 저 동네, 할 것 없이 서로 싸우다 병을 옮기는 들개를 비롯하여, 산개, 늑대 개 등, 산골마다 미친개들이 판치고 있었다. 그리니 자연 인명피해도 무수히 발생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당연 바깥출입을 꺼려했고 그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중이다. 더군다나 광견(狂犬)한테 물리면, 미치거나 죽는 사례를 초래하니 정말 골치덩어리였던 것이다.

이때 원님께서는 ‘미친개를 많이 잡는 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라는 방까지 붙어놓았으니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짐작이 갔다.

우리 역사를 보면 뜻하지 않은 괴질이나 역병 같은 병으로 수난을 많이 겪어왔는데, 대충 따져도 이질, 천연두, 문둥병 등, 그런데 지금은 때 아닌 미친개가 유난히 성행하였다.

아마 황팔도가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었으리라.

그는 이제부터 천하를 주름잡는 호랑이로 둔갑했으니, 그까짓 미친개 하나 때려잡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타관산천을 쏘다니며 미친개만 찾았다. 그리고 눈에 띄는 대로 비호처럼 덮쳤다. 고양이 앞에 쥐걸음. 미쳐서 날뛰는 개라해도 범 앞에는 쪽도 못쐈다. 황팔도는 그러한 개를 하루에 한 마리도 잡고, 두 마리도 사냥하면서 본인이 거쳐하는 (아미산) 계곡으로 돌아와 깊이 숨겨둔 책(비보)을 다시 읽는다. 그러면 묘한 거짓말처럼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부인 몰래 사냥해온 개 쓸개(미친개라 해도 장에 붙은 쓸개는 이상이 없음)를 흙룡(土龍)이라 속이고, 감초와 천궁 당귀와 등을 가미시켜가며 정성껏 달여 먹였다.

항시 운이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날고, 기는 범이라 해도, 어느 때는 빈탕 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개는 절대 잡지 않는 야행성으로써 숫한 고초를 겪어야하는, 감이 누가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이중생활을 감행했던 것이다.

어느덧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면서 병마에 시달리던 부인의 몸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으며, 그에 따라 황팔도의 사냥솜씨도 제법 능숙해졌다. 이전 노련한 비호(飛虎)가 된 채, 전국 천리 밖까지 누빌

수 있는 바람에 미친개의 수는 점점 줄어들 뿐 아니라, 인명피해는 물론 광견이란 그 공포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황팔도라 해도, 어느 누군가한테 들키게 마련. 황팔도의 정체가 결국 노출되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미친개만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몽둥이로 설치대는 동안, 난데없이 붉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자기 목표물을 ‘후다닥’ 채가는 바람에, ‘으- 악!’ 하고 기절초풍 놀랜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정말 한 두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들이 바로 목전에서 느닷없이 당하는 순간, 어쩔 바를 모르고 혼비백산 도망쳤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같이 인간한테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은연중에도 알게 됐든 거였다.

“붉은 호랑이는 왜 미친개만 잡아 가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께서 흘러나온 말들이 사태처럼 굴러나가면서 장안에는 온통 붉은호랑이 얘기로 화제가 모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 얘기지만, 그 때 황팔도로 하여금 미친개가 무두 멸종됐음으로 ‘수백 년 동안 광견(狂犬)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고 전해졌으며, 그리고 그, 당시-

“무서운 병마를 없앤 구국충호(救國忠虎) 붉은

호랑이를 산채로 포획하여 큰상을 내려 쥐야 한다.” 고, 할 정도였으니, 소문대로 정말 붉은호랑이가 여러 사람들의 우상이 된 것 만큼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와 반면, 붉은호랑이를 혐오하는 자가 딱 한사람 생겨났다. 그는 바로 황팔도의 아내였다. 왜냐면 자기 남편을 도저히 평범한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희괴한 존재로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할퀴진 상처와, 가시에 찢기는 행동거지가 아무래도 수상쩍게 여겨지며 자꾸 의심하기 시작한 부인은

“어디서 귀한 흙룡(土龍)을 날마다 구해온단 말인가?”

하고, 깊이 파고들며 고민하다가, 이젠 병도 거의 다 나아지고, 거동이 활발해지니, 하루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마음먹게 됐다.

먼동이 틀 무렵, 부인은 남편 몰래 뒤를 따라갔는데, 남편은 예나 다름없이 산속으로 들어가 바위틈에 감춰둔 책을 꺼내들고 주술을 외었다. 그러자 푸른 안개기운이 일어나면서 황팔도를 휘감고 도는 순간, 남편은 온데간데없고, 육중한 호랑이 한마리가 네족(四足)을 뻗으며 입을 떡 벌리고 기지개를 편다.

“으, 약!”

긴장했던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까물쳤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

자기 남편 같은 고귀한 공자는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사람도 아닌 맹수였다는 사실이 바로 눈앞에서 목격됐으니, 정말 당황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내가 잘못 본거야!”

부인은 휘청거리는 다리로 집에 왔지만, 도저히 자기 상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등허리엔 식은땀이 흐르고 머릿속엔 온통 남편에 대한 의심덩어리로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밤새 그 의혹을 풀려했지만 그럴수록 집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분노와 불신만 더욱 불꽃처럼 일어났던 것이다.

잠에 설쳐댄 부인은 불안하고 떨리는 가슴을 짓누르며 다음날도 같은 장소에 가서 잠복하고 때를 기다렸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붉은 호랑이가 홀연히 나타나면서 사방을 살펴보더니 바위틈에 숨겼던 책을 꺼내들고, 정중한 자세로 웅얼거리기 시작한다. 그러자 지난번처럼, 안개바람 푸른 기운 속에서 남편이 불쑥 나타난다.

“세상에 이럴 수가?”

백년 묶은 불여우가 재주를 세 번 넘으면, 사람으로 둔갑한다더니! 손오공도 아닌, 자기남편이 저렇게 요괴한 재주를 부릴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

부인은 더 확실한 정체를 확인하려고 다음날, 또 다음날도 몰래 엿 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이었다.

지금까지 자기를 감쪽같이 속여 왔다니 귀신 곡할 노릇이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세상에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원지 특별한 위인이라 여겨왔는데, 이제 보니 사람과 짐승사이를 왕래하는 야수와 여태껏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소름 끼친다. 이해하리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 할 내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의 세계를 상상만 해도 그 자체가 혐오스러웠고, 정신이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심 품은 부인은 정신착란에 휩싸이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아예 사람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바위틈에 숨겨둔 책(비보)을 꺼내들고는 집으로 뛰어왔다.

마침, 그날이 마지막 날인지라, 사냥을 빨리 끝내고 단숨에 돌아온 황팔도가 바위틈사이를 뒤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손에 잡히던 것이 하나도 없다. 정신이 아찔한 황팔도는 발을 동동거리며 이 잡듯 찾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불안과 초조감에 정신 못 차리고 바들바들 떨다가 그만 자리에서 펄쩍 주눅고 말았다.

‘앗 채!’ 하는 그 순간! 뇌리에 짐짓 무엇이 스친다.

혹시? 하고, 생각한 황팔도는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집으로 막 도착했을 때, 마침 아내가 부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호랑이와 딱! 마주치고 말았다.

“으악!” 하고,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벌러덩 나자빠졌다.

황팔도는 다짜고짜 부인을 움켜잡고 고함쳤다.

“내, 채! 어디에 있소?”

그러나 사람소리는 아니 나오고, 포효하는 범 목소리로 변한다. 이젠 실지로 성난 맹호가 되어 처음 나오는 목소리였다. 거기에 바짝 겁먹은 부인은 자기소행이라는 것을 미리알고 이처럼 날뛰는 남편 앞에 사시나무 떨 듯 바들바들 떨고 있다.

“어서, 내 채! 내놓으시오!”

손짓 발짓 하다가 나중엔 두 눈이 뒤집힌 채 발 툽으로 마당에 글씨를 써서 보였다. 그러자 더 이상 버틸 여지가 없었던지 부인은

“방금 아궁이에다.....!” 하고 실토하고야 말았다.

“뭘, 앗! 이 배은망덕 한!?”

정신이 뒤집히고 분에 복받친 황팔도는 버럭 소리 치며, 잡고 있던 부인을 후다닥! 내동댕이 쳐버렸다.

너무나 어이없다. 무모하고 단순한 아내의 오판으

로 하여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다.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한 많은 20대 꽃다운 청춘이 이렇게 막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그는 미친 듯이 펄쩍펄쩍 뛰다가 땅에 맥없이 주눅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까부터 계속 울부짖는 호랑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주변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기 시작한다. 흑여 미친개만 잡아간다는 그 유명한 붉은 호랑이가 아닌가 싶어서.

설마? 설마? 마음 조이며 무리를 이루고 찾아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조심스럽게 동정을 살핀다. 그런데 묘하게도 붉은 호랑이로 짐작했던지 처음 봤는데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다. 아니 눈물 뿌리며 비참하게 우는 모습이 무척이나 측은하게 여겨지면서 야릇한 동정심까지 일어났던 것이었다.

반면에 황팔도는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젠 모든 걸 체념한 듯 전혀 개의치하지 않고, 힘없는 눈빛으로 마당을 쳐다 보며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땅을 종이(白紙)삼고 발톱을 붓(筆)삼아 또박또박 깊이 새겨나간다. 그렇게 한참 쓰고 난 황팔도는 순한 양처럼 동네사람들을 향하여 큰 절을 올린다음 꼬리를 늘어트린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처량하게

걸어 나갔다.

바로 코앞에서 일어난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본 동네사람들은 한동안 넋이 빠져 있다가, 한참 만에 주위를 살피면서 이집 주인인 황팔도를 찾았다. 그러나 그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 대신 돌담아래 혼절한 모습으로 피 흘린 부인을 발견하고는, 부인을 방으로 옮겼다. 그러면서도 그들 모두가

“붉은 호랑이는 사람을 해칠 리가 없는데 정말 이상하다.”

며, 황팔도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마당을 가르치며

“호랑이가 뭐라고 쫓다나?”

하고, 한문(漢文)글씨를 읽을 만한 사람을 둘러보았다.

때마침, 신도사는 황팔도 운명을 예견했던지 회오리바람처럼 갑자기 나타나 마른침을 삼켜가며 황팔도를 찾았다.

동네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현재 벌어진 상황을 고하고, 마당에 새겨놓은 글씨를 가리킨다.

신도사는 단숨에 읽었다. 그리고 그 글씨를 다 읽기도전에 다리에 온힘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오!”

하고는 펄쩍 주눅아 버렸다. 사실 그랬다. 신도사는 젊은 황팔도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또, 이들 두

부부의 딱한 사정을 그냥 냉정하게 저버릴 수 없어서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체후의 마지막 수단을 가르쳐 줬던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의 병은 네발(四足)달린 짐승(토끼나 고양이)의 쓸개면 모두가 소용되는데도, 굳이 꼭, 개(犬)라고 지목한 것도 사실은 일석이조의 뜻이, 정말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황팔도가 마당에 한문으로 새긴 글은 다음과 같다.

=동네사람들 내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바로 황팔도란 사람이었오! 나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내 죄를 이제 서나마 고백 하겠소! 살아있는 생명은, 송충이라 해도 모두가 하나같이 소중한 법, 미친개도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이거늘, 어리석게도 나는 하나의 생명(자기부인)을 살리고자, 개(犬) 100마리의 생명을 살생한 죄인이라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자연의 섭리를 역행한 죄값으로, 나는 이제 하늘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와서 내가 누굴 탓하겠소! =

마당에 새긴 한문을 신도사가 설명해주자, 동네사람들은 비로소 황팔도의 정체를 알았다는 듯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방금 사라져간 호랑이 황팔도를 찾아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도사가 앞장서서 황팔도가 갔을만한 곳을 살피

며 산장을 막 내려오는데, 때마침 낯선 청년이 뛰어 오면서 혈떡였다.

“흰 도포 입은 청년이 수리바위 밑에!”

“뭣, 이?”

“물속에서 내가 마침 건져냈는데.....!”

동네사람들은 얼른 그곳으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수리바위 절벽아래, 젊은이가 물에 젖은 몸으로 누어있다.

도사가 얼른 그의 가슴을 만져보니 아직 따뜻했지만, 방금 숨을 거둔 상태다.

모두들, 아미산 수리바위의 상봉을 올려다보니, 그 바위틈 사이에서 쪽- 뻗어있는 참나무가지에 붉은 호피가 너울거린다.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황팔도는 사람으로 살수 없을 바엔 차라리 수리바위 절벽에서 깊은 물위로 몸을 던져버린 것이다. 그런데 떨어지는 그 찰라! 몸의 호피가 순식간에 벗겨지면서 인간으로 다시 환생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도 역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운명을 장식한 셈이다. 이것은 한 인간의 위대한 정신력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도인의 위력! 바로 그것이였다.

신도사는 자기로 인해 빚어진 이 엄청난 비극을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주위사람들을 향해 침통하게 입을 열었다.

“이는 이미 도를 통달한 위인이었소!”

“.....?”

잠시 후! 황팔도 부인은 제정신이 들자 이러한 전말을 충분히 알아듣고,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뛰어왔다. 그리고 축 처져있는, 남편을 부둥켜안고 땅을 치며 뒹굴었다.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선과 악! 참혹한 소용돌이가 야속하게도,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았다.

그러니 이를 어찌면 종단 말인가?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장면이다. 울고 또 울어 본들 아무 소용없지만, 산천(山川)도 크게 감동하며 슬퍼하는 이 처절한 운명 앞에, 누군들 울지 않을 사람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부부를 지켜보던 동네사람 모두가 눈물을 철철 흘리며 함께 울었다. 우는 눈물이 고여 냇물로 흘러나가고, 그 통곡소리는 들과 산으로 울려 퍼지며 하늘마저 사무쳤다.

심사위원장 **최 양 희**

(시인,소설가,평론가,한내문학회장)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한국수자원공사